<무기화학>

가성소다 반덤핑판정 연기 속사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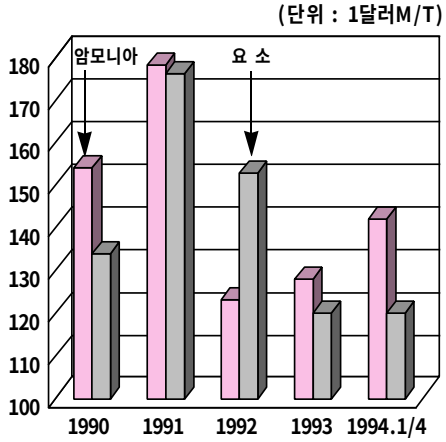
국내 비료산업은 60년대 정부의 식량자급화 · 비료국산화 정책아래 수입비료의 국산화 대체로 시작됐다.
그러나 80년대들어 생산과잉과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부진 등으로 83년 비료산업합리화조치를 단행해 87년까지 정부의 비료 인수량 감소, 수출둔화 등으로 생산량이 소폭 감소했으나, 비료판매자율화 조치이후 내수의 안정적 신장에 힘입어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들어서는 효율화된 생산공정과 원가절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투자와 신비종 개발연구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료성분의 대기방출제한과 암모니아 등의 생산시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에 의한 지구온난화 및 오존층 파괴 등으로 환경규제에 민감하게 노출되고 있어 향후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료기업과의 탈비료화도 가속되고 있는데, 94년7월 실시된 한국비료 공개입찰에서 삼성그룹이 2300억원에 낙찰, 한국비료가 추진중인 정밀화학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삼성은 97년까지 5000억원, 2000년까지 1조원을 정밀화학분야에 투자해 매출을 97년 8000억원, 2000년 1조2000억원으로 증대시킬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화학은 요소 · 암모니아 등 비료원료를 이용해 각종 Specialty제품 생산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적극화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비료산업 및 정밀화학분야 판도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기업별 비료 생산능력(1993)

(단위 : 1000M/T)

구 분	남해	한비	동부	진해	경기	풍농	조비
요 소	660	330	-	-	-	-	-
제1종 복비	1,150	-	500	350	-	-	-
제2종 복비	-	-	-	-	210	190	140
기타단비	-	-	-	-	215	108	-
합 계	1,810	330	500	350	425	298	140

【그림1】 암모니아 · 요소 수입가격(CIF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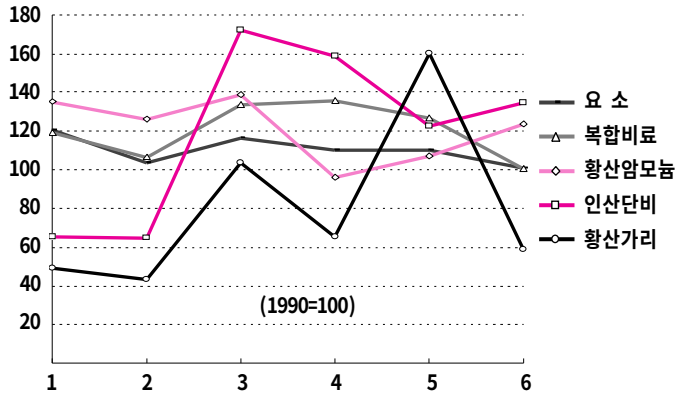


가격경쟁력 저하 불구 비료 생산증가

비료종류별 공급추이를 살펴보면, 요소가 비종의 대부분을 차지한 과거와는 달리 점차 요소의 공급이 감소하고 복합비료가 주종을 이루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수입비료는 요소 및 염화가리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동유럽권 및 중동이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저가의 merit를 살려 국내비료의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일정량 꾸준히 수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요소가 93년 전체 수입물량의 88.3%를 차지하면서 매년 일정량의 수입을 유지한 데에는, 93년부터

동유럽 및 CIS의 저가요소 다량공급으로 인해 국제가격이 FOB bulk기준 22.5% 하락한 90달러선에서 대량 거래되어 원가경쟁력의 차원에서 일부 수입이 불가피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요소의 평균가격은 91년 145~180달러였던 것이 93년에는 93~145달러로 하락했으며, 94년 초 가격동향은 95~120달러로 계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상반기 화학비료 생산량은 93년 상반기 생산실적 211만9902톤 대비 6.2% 증가한 225만1261톤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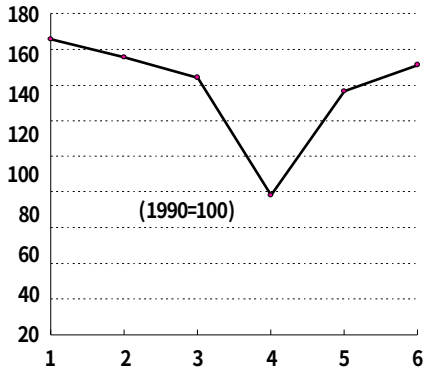
【그림2】 비료 비종별 월별 생산지수(1994)



【그림4】 소다회 월별 생산지수(1994)

비료 종류별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요소 47만3324톤, 복합비료 141만9250톤, 황산암모늄 23만2244톤, 인산단비 9만1599톤, 황산가리 3만4874톤 등으로 나타났다.
요소는 90년 생산량 85만7543톤을 기준으로 볼 때 93년 93.7, 94년 1/4분기 113.7, 2/4분기 107.1로 나타나 국제요소가격 하락에 기인해 93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94년들어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복합비료는 93년 109.7, 94년 1/4분기 119.9, 2/4분기 121.0을 보였고 황산암모늄은 93년 121.6, 94년 1/4분기 133.4, 2/4분기 108.8을 기록해 가파른 상승세에서 잠시 소강상태에 빠진 것으로 분석된다.
인산단비는 93년 122.2, 94년 1/4분기 101.0, 2/4분기 138.7로 지난 2년간의 하강국면을 벗어나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산가리는 93년 80.7, 94년 1/4분기 65.4, 2/4분기 94.8로 침체 늪에서 벗어나기에는 일정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림3】 가성소다 월별 생산지수(1994)



CA산업은 소다협회가 주축이 되어 미국의 Georgia Gulf, PPG Industries, 중국의 Shanghai Chlor-Alkari, 벨기에의 Solvay, 프랑스의 Atochem 등을 무역위원회에 가성소다 반덤핑 혐의로 제소한 상태에서 무역위원회 판정이 한달 연기, 소강상태에 접어든 느낌이다.
특히 94년 초까지만 해도 FOB기준 톤당 15달러의 바닥권을 형성중이던 가성소다 수입가격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상승을 보여 8월현재 FOB기준 톤당 300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따라 가성소다 내수가격도 94년초 톤당 8만원선에서 7월현재 12만원으로 연초대비 50%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가성소다 실수요처인 염색기업 등은 가성소다 물량공급이 원활치 못해 공장가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성소다 생산지수를 살펴보면 통계청이 발표한 90년 생산량 34만467톤을 100으로 기준할 때 93년 148.9를 보여 92년과 비교거의 정체세를 보였다.

또 94년1월 165.9, 2월 155.7, 3월 144.4, 4월 78.0, 5월 136.7, 6월 151.2를 나타내 94년 상반기 전체로는 138.7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성소다는 기초화학제품으로 관련수요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비료가 94년들어 5만톤 규모 공장을 신설 가동중이며, 한양화학이 95년 6만톤 증설계획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연간 10%정도 늘어나는 수요를 국내 생산량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계약된 수입물량을 국내 가성소다 시장에 어떤 형태로 공급하는가 하는 요인이 향후 시장상황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판유리 및 화학분야의 비중이 큰 소다회의 94년 상반기 생산은 16만8228톤으로 93년 상반기의 14만6254톤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다회의 90년 국내생산 33만4677톤을 100으로 기준할 때 93년 생산은 33만911톤으로 98.9를 보여 소다회의 특성상 Life Cycle이 성숙기에 도달, 정체세를 이룬 것으로 분석됐다.
또 94년 1월 122.5, 2월 105.9, 3월 121.8, 4월 49.2, 5월 106.0, 6월 100.1을 각각 나타내 94년 상반기 전체로는 100.9를 보였다.
소다회는 건축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품목으로 지난 88년 건축경기 회복과 같은 활황을 맞지 않고서는 당분간 정체세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9/1>